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태희



요즘 군 생활을 회고하는 일이 많다. 초병이 북에서 날아온 배라를 주우면 내게 가져왔다. 내용은 차차치고 인세가 조잡하기 짝이 없었다.

었다. 평화를 위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적, 국내적 요인의 결합이었듯이, 통일도 국제적, 국내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을 남한에 주둔시키는 데 북한의 존재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안보·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순망치한(肅清)의 존재이다. 한미의 동맹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듯이,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다들 현상유지가 목표이고, 우리의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다자협력체

제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안전과 통일을 보장하는 틀로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결국 주인인 남과 북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이다.

북한체제가 곧 붕괴할 테니, 조금만 더 압박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미소의 경쟁에서 압박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고르바초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진행되었을까?

전안할 사건을 계기로 보복과 응징을 다짐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대통령은 전

야 한다. 병사가 46명이나 죽었는데, 두 달 만에 원인을 밝히면서 북한의 소행만 탓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남쪽을 향한 개방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 기조를 타파해 그동안 풀었던 빚장을 하나씩 다시 닫고 있는 것이다.

안보논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야당 지도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동안 독재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안보논리를 약용한 전례에 따른 피해의식일 뿐이다.

안보는 중요하고 진정한 안보논리를 내놓는 것이 공당의 의무 아닌가. 안보나 안보논리가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외국인 유치해야

올들어 광주·전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완도 소쇄포를 소재로 한 '완도 건강의 섬 여행 4박5일' 상품은 판매 한 달여 만에 중국인 관광객 1천31명이 모였었다.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가능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올해 F1대회 개최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이벤트가 줄줄이 열리게 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인프라 부족만 탓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가능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올해 F1대회 개최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이벤트가 줄줄이 열리게 된다.

청소년·여성 흡연 줄일 대책 서둘러라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금연을 위한 캠페인과 대책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신체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성장발육뿐만 아니라 두뇌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여성의 흡연은 더욱 치명적이다. 자신의 건강을 물론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정에 새로운 생명체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길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위해 주제가 '여성과 흡연'이었던가.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줄지 않고 있다. 19세 이상 여성 흡연율은 2001년 5.2%에서 2004년 7.4%로 높아졌다.

정부는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주변환경의 정비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청소년과 여성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부즈맨 칼럼

김현석



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다섯 번째인 이번 선거에서는 무려 여덟 명의 지역일꾼을 한꺼번에 뽑아야 한다.

최근 광주일보를 비롯한 모든 지방신문사가 많은 지면을 선거 관련기사에 할애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거주지역의 각종 후보자를 상세히 파악하고 정책을 비교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의 초점이 주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에 맞춰져 있다 보니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관심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경향도 있다.

당하는 1100여 명이 되었다. 이들 중 절반을 훨씬 넘는 약 750명이 지역구 시군구의원 후보였다 한다.

또한 전과자라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과정의 전과경력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현

기고

고호석



"아따! 어지럽네! 정말 어지러부네!" 시내 한 식당에서 어느 70대 어른의 주머니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모습을 가장 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는 1인 8표로 처음으로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한데 묶어 치르게 되었다.

지방선거에 일반적으로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의원 선거에 더 관심을 쏟으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는 아예 실종된 것 같다.

다한 양식과 덕망 같은 도덕성이 더 중요한 선택 요인이 돼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단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방선거에 얽혀 치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과 뭐가 다르고 심지어 교육위원 선거가 뭐가 다르지 모른다.

후보 중에 흑시라도 교육현장 제작 중 가정문제, 음주운전 전과, 부적절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분리해야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투표용지의 기표 순서를 추첨으로 정하기 때문에 번호만 잘 뽑으면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가 있어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실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후보자가 있어도 유권자가 욕서를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바로 이러한 열정이 오늘날 우리를 성공 국가로 만드는 기반이 됐다.

교육을 정치적·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들 선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주권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했으면 한다.

<전 송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자원봉사활동으로 귀감돼야

선거운동 기간에 무차별한 확성기 소음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 이러한 선거운동 보다는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한 후보자는 말할것도 없고 입후보자 모두가 선거 운동기간을 이용하여 소외 받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고 말벗이 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일상생활의 복지 즉 경제적 복지, 생활복지, 문화복지 개념 등으로 글로벌시대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입후보자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유권자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일꾼 뽑는 현명한 선택을!

되는 주민직선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이 있는 것 같다.

교육감은 예산, 인사, 정책집행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지닌 지역교육행정의 수반이다. 우리 사회의 유별난 교육열을 보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앉는가는 대단한 관심사일 터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일보 지난 5월17일자에 게재된 광주, 전남 교육감 출마자의 이슈별 정책방향 비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자당의 후보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6·2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책임자와 그 감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6년에 실시된 4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203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절반이 넘는 110명이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31명은 이미 판결 확정으로 퇴출되었다 한다.

<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

無等鼓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문구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종이 돈 대신 금화와 은화 등 실물 동전이 사용되었다. 당시 은화 한 뼘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은 가격과 은화의 가치가 똑같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화폐를 만들다 보니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

'그레삼의 법칙' 악화가 시장을 지배했다. 이러한 현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삼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했다.

그레삼의 법칙은 선거관에도 적용된다. 훌륭한 인품, 실현 가능한 공약을 두루 갖춘 후보를 '양화'라고 치자. 반대의 경우가 악화다.

악화로 지정되는 후보의 특성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공식적인 관계나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

다. 유권자들이 악화(나쁜 후보)의 폐단을 깨닫지 못해 진짜 뽑아야 할 후보가 고배를 마시고 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